

2015년 6월 22일 새벽 편집본 정리 말씀

네, 다시 월요일 새벽입니다.

금주의 주일 말씀은 “전에 너희를 쫓고 괴롭힌 자들을 이제는 너희가 쫓으리라.” 본문은 여호수아 23장 8절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알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서 그들에게 얻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포기하면 영원히 못 얻지만, 포기 안 하면 오랜 후에라도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세력 이런 것을 압니다. 끝까지 포기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 않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진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포자기라고 합니다.

우리 섭리를 한 5-6년 동안 할 때도 포기하고 “힘들다. 이것은 어렵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심술부리고 악한 사람이 일어나고, 민족이 일어나고 세계가 일어나서 그러니 어렵다.” 했습니다.

선생도 모든 일을 할 때 전혀 바늘 끝만큼도 틈이 없고, 어려움이 닥치면서 가면 갈수록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서를 볼 때에 다니엘서 12장에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단12:7).”

‘모든 것이 다 깨어지기까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이 단계까지 왔으니까 끝나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니까 목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어야 모든 것이 다 끝난다.” 했으니까 ‘아, 내가 완전히 갈 데까지 가야 끝나는 구나.’

이렇게 이런 세계까지, 극적인 세계에까지 처하다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두 끝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끝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때가 되면 끝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따지고서 기다리면 딱 기다려줍니다. ‘아, 언제까지만 참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따질 줄 알면 참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만 딱 되면 된다. 100% 된다. 때만 되면! 그 때가 가깝다. 그 때를 두고 열심으로 기도해라. 그 때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서 부지런히 불철주야하라.”

“할 때 해야 된다. 그때 못 하면 못 한다. 할 때 해야 된다. 그때 못 하면 못 한다.”

“그때 못 하면 못 한다. 그때 해야 한다. 그때가 기회다.”

한 때는 자유가 없어서 ‘아, 자유 없으면 지옥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유가 없으니까 지옥이구나. 구세주가 되었던 선지자가 되었던 중심인물이 되었던 자유가 없으면 지옥

이구나. 자유를 얻게 되니까 천국이구나.’

‘마음이 괴로우니까 지옥이구나. 그래서 심령천국을 말하는구나. 마음만 기쁘면 천국인데. 아무리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마음이 괴로우면 지옥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권, 그리스도의 주관권 속에 오직 심령적인 세계로만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해결될 때 천국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더욱 깨닫고 알았습니다. 본인만, 겪는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들도 다 겪어봤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마귀, 사탄, 귀신, 행악자, 여러 모든 가라지 할 것 없이 너희를 쫓던 자를 너희가 쫓으리라.”했습니다. 그 대신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니 “과거에 그런 환난가운데 이긴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 너희들이 그들을 당해왔지, 함께하지 않으면 당할 수가 없다.”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지.”했습니다. 이와 같이 갈 데까지 가야 새로운 역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쫓던 자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그때, 순간순간의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전체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들이 포기를 많이 합니다. 지체들이 포기하거나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자신 있다. 된다.” 하고 밀어붙이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한 것만 남아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이겼다.”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까지만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해서 이겼지, 그냥은 못 이긴다.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섭리사 주인은 먼저 합니다. 내가 시작할 때는 하나님은 벌써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보면, 공생애 때가 있습니다. 공생애 때 나타난 것을 보면, 30살 때에 그냥

그러면 “내가 어련히 알고 너를 인도하겠느냐. 어련히 알고.” 하고서 깨우쳐 줍니다.

“가령 너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애가 네 앞에 와서 막 자포자기하면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 바보야, 내가 너에게 십분의 일의 힘을 안 써도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런 애기를 안 하겠냐? 네가 어려운 일이 있다는데 나 하나님이 일억만 분의 일만 해도 해결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나는 지금 일억만 분의 오십, 팔십 들어도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일억만 분의 일만 들어도 해결되는데 내가 그것을 안 해 주겠냐.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무슨 일 있으면 내가 그러니다. 애들이 “선생님, 저는 정말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면 “지랄하지 말고 빨리 내 말만 들어. 너 밖에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합니다.

가끔 힘들다고 편지가 옵니다. “야, 이 바보야. 다 먹은 밥에 코 빠져? 집을 다 지을 때까지도 했는데, 벽만 바르면 되는데 그것을 못 해? 못 하겠다고?”

문제는 뭐고하니, 어려운 것을 다 이기고 와서 아주 쉬운 것, 외나무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이와 같이 “일 다 해 놓고 왜 그러느냐? 자포자기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다른 사람이 하니까요. 포기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도 대담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떠보려고 그런 환경에 넣습니다. ‘이것이 이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할 것인가?’

담대한 자가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 있고, 미인을 취할 수 있고, 담대한 자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행해야 됩니다. “나 못한다. 뭐 한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결국 이긴다. 싸우고 이기고 나가자.”

요즘에 조금 편해진다고 다른 마음먹으면 큰일 납니다. 과거에 못 한 것을 이제 해야 됩니다.

“무덤기간 때에 못한 것을 이제 하도록 하라. 전도 못한 것도 해야 된다. 환난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 못하고, 영광 못 돌린 것 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세계 각 나라들, 안녕!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말씀했으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성령님께서 감동시킨 것을 잘 깨닫고 열심히 하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 때 못했으니까 이제 하라.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뛰고, 주와 같이 먹고 마시고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해 주시고, 힘들어서 자포자기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 일어나라.” 내가 그 영들을 오늘 새벽에 불러서 모두 힘내라고 하고,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 주시고, 유혹된 자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깨닫고 전했으니 의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머리 위에와, 온 민족과 세계 섭리사에 충만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네, 말씀 마쳤습니다. 안녕!